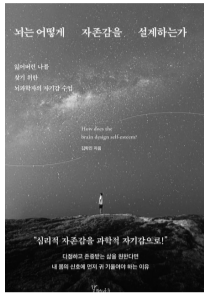


‘묻지마 범죄’ 통제할 과학적 방안 찾기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김학진 지음



“무시당한다는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걸까? 개인의 감정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는 반사회적 폭력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히 통제할 과학적 접근방법은 없을까?”

사회신경과학자인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펴낸 신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지하 철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나 공감할 주제이다. 범인들은 공통적으로 “나를 무시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타인과 결실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는 행위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삶의 좌절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심어줄 것이다”고 밝힌다. 저자는 흔히 사용하는 ‘자존감’ 대신 생물학 용어인 ‘자기감’으로 재정의한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뇌과학자의 자기감 수업’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뇌과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존감과 감정을 분석하고, 뇌과학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1부(자존감에서 자기감으로)는 ‘자기(Self)에서 출발해 자존감 형성과 생물학적 기원, 뇌의 생존전략인 ‘알로스테시스’ 기능을 살피고, 2부(뇌가 자존감을 방해하는 방



“자기(Self)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결실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 서울 명동 상점가를 걷는 시민들. /연합뉴스

식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 다양한 자존감 불균형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 그리고 3부(감정을 직면하는 뇌)는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뇌과학 기반의 방법론인 ‘자기감정 인식’을 제안한다.

뇌과학에 따르면 뇌는 ‘생존과 번식’에 목표를 맞추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내부신호(신체)와 외부신호(환경)에 따라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불안과 분노, 편견, 혐오와 같은 감정 또한 뇌와 신체간의 소통장애, 또는 예측오류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신체 항상성이 깨졌거나 앞으로 깨질 수 있음을 뇌가 미리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알람신호”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알로스테시스’ 개념이 생소하다. 저자는 이를 “뇌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명의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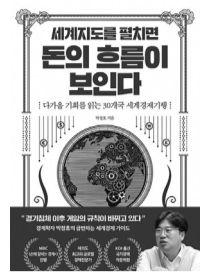
극적 목적을 위해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을 활용하는 방식”, “생리적 또는 행동적 변화를 통해 안정성이나 항상성을 달성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하며 왜 엄마가 자녀를 동일시 하는지, 왜 사람들이 나보다 낮은 계급을 혐오하는지, 한단계 한단계 이야기를 뇌과학으로 풀어나간다. 이런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로 인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알리는

여러 신체신호를 무시하고, 사회적 보상에만 몰입하는 현상인 ‘인정중독’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다. 차별과 혐오의 언어 또한 신체항상성 불균형때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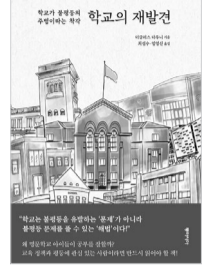
저자는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상태인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기감’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감정 인식’을 제안한다. 뇌과학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은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요즘, 인간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준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기법(fMRI)을 이용해 인간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저자는 앞서 이타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신경학적 기제를 밝히는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 구조’(2022년)를 펴내 주목받은 바 있다. <갈매나무·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미증질서 아래 편성되던 세계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란 거대 소비시장은 저물기 기초를 떠받쳐 왔으나 중국은 경기침체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이후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을 펼치면서 인도 등 제3국이 부상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오텍시타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 등 초국적인 해외 프로젝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러 전쟁과 인도의 역할, 우리나라의 포지셔닝 등을 훑어본다. <반나·1만9800원>



▲아주 사적인 은하수=우리는 은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해주는 우주의 130억년 비밀 이야기. 과학적 지식을 기쁘게 하며 우주의 역사를 말하듯 들려준다. 별과 항성의 탄생부터 죽음, 0형 항성 등 어려운 내용도 재치있게 설명하는데 은하가 실제로 집필할 법한 자서전을 읽는 듯 다가온다. 최신 관측결과와 지식들도 담겨 있다. <까지·1만8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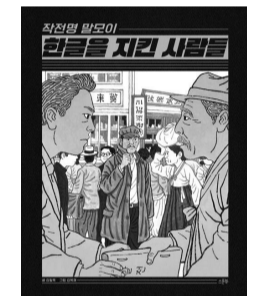


과 등을 제시하면서 학교가 불평등을 줄인다는 통계적 근거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동아시아·1만8000원>

▲세레나데=열네 살 아들을 키우며 대학에서 일하는 마야는 튀르키예를 찾은 노교수 막시밀리안 바그너를 보살피는 업무를 맡는다. 일정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흑한 칼바람이 부는 흑해를 방문하고, 바그너 교수는 반복적인 곡조가 특징인 ‘세레나데’를 연주한다.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학살, 전쟁 중 지행된 박해를 떠올리게 된다. 인간의 순수성과 국가권력의 폭력, 마야의 가족사와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문학과지성사·2만2000원>

▲학교의 재발견=아이들의 학력 차이는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비틀린 척도와 상대적 박탈감 등 다양한 교육 척도들을 제시하면서 학교가 불평등을 낳는 방식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학교의 역할을 제언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가 학습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한다. 연구결

어린이·청소년 책



▲팡둥이의 시골생활=200만부 판매를 돌파한 스페셜 에디션이 발간됐다. 나의 고향, ‘우리들의 집밥’ 등 총 6권 세트. 그때 그 시절, 부끄러워 살던 흠뻑새 나는 시골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자연의 소중함, 환경에 대한 경각심 등 사뭇 소리를 느낄 수 있는 1998년 시골, 말쑥꾸러기 팡둥이가 펼치는 학교생활과 사계절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 <파랑새·각권 1만3000원>

의 좋은 사례다. 불안의 그림자를 벗어나 혼자만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지친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서 벗어나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학생들을 불안으로부터 구조해 준다. <자음과모음·1만6000원>

▲조금만 버터, 지금 구하려 갈게=소방관들은 지진, 감염병,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타인의 목숨을 살리는 영웅이다. 이들이 재난상황을 마무리한 뒤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은 불안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하나

▲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닌 사람들=1943년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혼란 속에서 식민지배 국가들은 고유의 언어를 잃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35년간 일제 치하 속에서 한국어를 철저히 탄압받은 역사가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선조들이 우리말을 지켜온 노력을 되새긴다. <스픈북·1만4000원>

기억과 운명, 비극과 자유의지, 기후위기...

2023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권연선·서유미 외 지음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을 쓴 순천 출신 소설가 김승옥은 “1960년대 한국 현대소설의 빛나는 한 정점을 보여주는 작가”다. 그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2013년 제정된 ‘김승옥 문학상’은 등단 후 10년이 넘는 작가들의 단편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하며 지금까지 윤성희, 편혜영, 문진영, 김금희 작가 등이 영예를 안았다.

현재 한국 소설의 흐름을 만날 수 있는 ‘2023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나왔다. 이번에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8개 문예지에 발표된 191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고 이중 대상작 1편과 우수작 6편을 선정, 작품집에 실었다.

올해 대상작은 “거의 아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권희철 문학평론가)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권연선의 ‘사슴벌레식 문답’이다.

‘정원’의 이십 주기 추모 모임 단체 대화방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소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같은 하숙집에 살게 된, 각자 다른 성향의 네 친구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성적이 시원시원하고 통이 커 모임의 리더 격이었던 부영, 상냥하고 조심성이 많았지만 가끔은 광기나 충동에 몸을 맡기곤 했던 정원,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의가 발랐던 경애, 그리고 술을 좋아하며 즉흥적이었던 화자 준희. 이들은 정원의 갑작스러운 자살과 경애의 배신으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준희는 삼십년 전 넷이 함께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을 떠올리며 생각에 빠진다.

심사위원이었던 문학평론가 양은희는 “소설의 사슴벌레는 죽음의 향기 가득한 이곳으로 꿈틀거리며 기어 들어와 우리에게 기억과 운명, 비극과 자유의지에 대해 묻는다”라고 평했다.

서유미의 ‘토요일 아침의 로깅’은 미국 지사 발령을

위해 영어 회화를 배우던 한 중년남성이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으면서 4년간 매주 토요일 함께했던 선생님에게 마지막을 고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이며 백수린의 ‘빛이 다가올 때’는 시선을 잃은 이모의 삶을 대신하느라 자기 욕망을 돌볼 새가 없었던 등장인물이 뒤늦게 자기 삶을 되찾아가는 순간들을 담담하게 회상하는 소설이다.

최진영의 ‘뽕머리의 미술과학’은 열여섯 살 이복과 아홉살 이여름의 시선으로 기후 위기를 목전에 둔 세계를 바라본 작품이며 최은미의 ‘구곳’은 여름철 폭염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 안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밖에 구병모의 ‘있을 법한 모든 것’, 손보미의 ‘끝없는 밤’ 등도 만날 수 있다.

각 작품의 말미에는 작가노트가 실렸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문학평론가 권희철·오혜진·김화영, 소설가 임철우·편혜영의 리뷰도 함께 담았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유)신진해운 061)244-0522